

나주시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 선점...연구센터 유치 성공

농식품부 공모 선정...105억 투입 나주일반산업단에 2026년까지 건립 전세계 2032년 110조 시장...기업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 지원

나주시가 탄소중립 푸드 업사이클링(Food upcycling) 시장 선점을 위해 도전한 연구센터 유치가 성공했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푸드 업사이클링' 분야에 선정됐으며 2026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해 나주일반산업단에 연구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국내에선 생소한 푸드 업사이클링(Food Upcycling)은 농·축산물과 식품 가공 부산물 등 상품 가치가 낮은 자원에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 고부가치 식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오는 2032년께 전 세계적으로 830억 달러(11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선진국에선 이미 활발하게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기업의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센터 사업 예정 부지는 나주일반산업단지 일원이며 부지 3417㎡, 지상 2층, 연면적 1612㎡ 규모로 시제품 제작과 실증을 위한 장비·설비 공간, 기업 입주 공간, 연구 분석실 등을 갖추게 된다.

국내 최대의 농축산물 생산지인 나주시는 이번 공모에 대비해 지난해 초 푸드테크 추진 전담(TF) 팀을 구성하고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과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왔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국고 건의와 함께 '산업화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연구지원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푸드 업사이클링 생태계 구축 산·학·관·연 협약(MOU) 체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주시는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푸드 업사이클링 관련 국제 협력 과제 등 다양한 기술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푸드테크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지원센터가 구축되면 2029년까지 고용 창출 280여명, 사업화 매출 165억원, 부가가치 260억원 등의 경제 유효효과 예상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시가 미래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갈 푸드테크산업의 첫발을 전국 최초로 뜨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나주시의 풍부한 농·축산물과 푸드 업사이클링 인프라를 활용해 나주시만의 차별화된 푸드테크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가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나주일반산업단지에 구축하게 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감도. (나주시 제공)

장흥군, 중국 웨이하이 보세구와 50만 달러 수출 협약

과징전자상거래 대회 참석

장흥군이 중국 웨이하이 종합보세구에 50만달러(7억원 상당) 농특산물을 수출한다.

장흥군은 최근 6회 한중(인천) 과징전자상거래 대회에 참석해 중국 웨이하이 보세구와 전략적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장흥군은 협약에 따라 2년간 50만달러에 달하는 농특산물을 수출할 방침이다.

한중 과징전자상거래는 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항공과 선박을 이용한 물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1회, 6회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 장흥군은 수출 업무협약과 장흥군 참여기업 제품 홍보, 전시 등을 했다.

장흥군은 중국 웨이하이 보세구를 대상으로 장흥 농특산물의 해외 전자상거래(온라인쇼핑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웨이하이 종합보세구를 통해 수출하면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수입 인허가 등록·신고 등 면제, 관세부와 유예, 45일간 상품 무료 물품 보관(6개월 범위 내 연장)을 할 수 있다.



장흥군과 중국 웨이하이 보세구가 인천에서 50만달러 상당 수출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또 보세구 창고의 활용으로 최적화된 직구 수출 입 물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은 회원 3300만명에 달하는 중국 농인협회와 농특산물 판매를 추진해 수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웨이하이 수출협약을 계기로

중국 온라인쇼핑몰 입점에 좋은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올해 추진되고 있는 장흥군 농특산물 수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 수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5월 효도 선물 '강진 반값 여행' 어때요

여행비용 50% 지역화폐로 돌려줘

강진군은 가족 여행객에게 여행비용의 50%(최대 20만원)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강진 반값 여행'을 5월 효도 선물로 추천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진 반값 여행은 여행비용의 절반을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강진군이 올해 처음 시행한다.

여행 최소 사흘 전에 강진반값 홈페이지(gangjintour.com)에 신청하면 반값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강진여행을 끝낸 뒤 일주일 안에 정산 신청을 하면 정산한 당일 또는 7일 이내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은 '초록민음 온라인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강진의 대표 특산물인 쌀귀리와 표고버섯 등을 선보인다.

강진군은 부모님과 산책하기 좋은 가우도와 출렁다리, 숲길, 강진다원, 이한영차문화원 등을 여행지로 추천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진군은 향우를 대상으로 각종 소셜미디어(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특별한 여행을 선사하고 안성맞춤 선물도 집까지 배달해 드릴 수 있는 강진 반값 여행은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강진 반값 여행으로 전국의 모든 가정이 행복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엑스포공원에 '함평 추억 공작소' 개관

나비 대축제 개막 맞춰...1960년부터 1980년대 생활상 재연



이상의 함평군수가 함평엑스포공원에 새로 문을 연 '함평추억공작소'에서 1960년대 대포집을 재연한 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나비 대축제' 개최(4월26일~5월6일)에 맞춰 함평엑스포공원에 '함평추억공작소' 문을 열었다.

함평추억공작소는 '함금박쥐상'을 상설 전시하면서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은 옛 함평문화유물전시관이 지난 2020년 8월 호우 피해를 겪으며 이전 신축한 건물이다. 3년 6개월 만에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 문을 열었다.

1960년부터 1980년대의 생활상을 재연하며 추억을 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꾸며졌다.

가상 인물인 '함기영'과 22곳의 공간을 거닐고 3개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세나라 학생사'에서는 옛적 상품들을 직접 판매하고 '함평다방'에서는 미디어 놀이 체험과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다. '함평극장'에서는 함평을 배경으로 한 영화 '나에게 오라'와 최초 상영작인 '자유만세'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관 입구에는 한국 협계 경우 열차로는 최초의 함평협계열차를 재연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함금박쥐를 찾아라' 공간에서는 화면의 함금박쥐를 누르면 캐릭터가 하늘 위로 날아오르며 관람객에게 합격, 부기, 다산, 장수를 기원하는 응원을 던진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 이양면에 이순신 장군 순시 기념비 제막

이순신 장군은 1596년 11월11일 화순 이양면(이양면)에 도착해 그때 기다리고 있던 해운관관 조준성을 만나 흥년의 여파로 세국이 견디지 않아 조장이 바닥났다는 보고를 듣고 해결책을 강구한 뒤 보성으로 떠났다. 이 같은 사실은 '난중일기'에 기록됐는데, 순시 기록은 하급관리의 고충을 경청하는 지휘관의 소중 덕목을 보여준 귀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에 맞춰 화순에서 이순신 장군 순시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사진> 화순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화순군 이양청풍농협 하나마트 선점 앞에서 '이순신 장군 순시 기념비' 제막식을 하고 이 충무공의 나라사랑하는 충심을 기렸다.

이날 기념비 제막식에는 구북구 화순군수를 비롯

한해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오형열·조세현 화순군의회 의원, 구제길 세종병원 이사장, 안상섭 이양청풍농협조합장, 박용 화순경찰서장, 정찬주 작가와 이양청풍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이순신 장군 탄신일에 순시 기념비 제막식이 있어 매우 뜻깊고 역사는 만들어진다"며 "이양청풍 도로를 지나는 자리에 있는 농협 하나마트 선점점이 있어 대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기념비 사업을 주도한 구제길 세종병원 이사장은 "기념비 모양이 배 모양인데, 여기에 12척의 배를 가지고 적군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의 위상을 높이는 비문까지 새겨져 가슴이 뭉클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내달부터 주 4일로 줄여 운영

화순군이 다음 달부터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운영 횟수를 줄인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5월1일부터는 주 6일 운영을 주 4일로 줄여 운영한다.

음악분수는 수·금·토·일요일 주 4일 오후 8시에 20~25분가량 운영한다. 토요일에는 밤 9시 공연을 추가해 하루 2회 공연한다.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는 이달 3000명 넘는 관람객을 모았다.

올해 연휴를 추가하고 최첨단 영상시설을 설치했다. 화순군은 공연 휴무일에 시설물과 장비 유지 관리·점검을 하기로 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다음 달부터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가 주 6일에서 4일로 줄여 운영된다.

장성군-백종원 더본코리아, 청년 창업 돕는다

외식창업·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장성군이 백종원 요리 전문가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손잡고 외식 분야 청년 취·창업을 돕는다.

장성군은 최근 더본코리아산업개발원에서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더본코리아,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성하이테크고등학교, 숭의과학고등학교, 외식업중앙회 장성지부, 백련동 판매농원과 '청년 외식창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장성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발굴하고 청년 인력 양성을 맡을 예정이다.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의 유통 활성화를 담당한다.

장성지역 외식업체는 청년 식생활 향상 공동체 연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학교는 청년 외식업 인력 양성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앞서 이달 11일 장성군은 ㈜더본코리아와 장성먹거리활용한 육군 상무대장병 특식 제공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더본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단체급식 준비 방법을 전수했다. 식당 경영주와 창업 준비 청년, 장성하이테크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곽영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장성군 부군수)은 "이번 업무협약이 외식분야 취·창업에 희망하는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 인재 양성의 소중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